7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민주주의 역사교육 연구 동향

현 종 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민주주의 역사교육 연구 동향

현 종 철

한국민주주의연구소

01 들어가며

최근 교육현장에서 역사교육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국정화교과서에 대응하는 차원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역사교육의 방향에 대한 문제로, '민주주의 역사교육'이 그 방향의 중심에 있다.

해방 이후의 역사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손진태[1] 등이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부로 이어오면서 역사교육은 반공주의와 국가주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역사교육은 정체성 정치[2] 로 인해 사실상 실현된 적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동안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역사학자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현장교사들의 역사교육 의식조사 결과를 기초로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지향해야할 방향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국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민주주의 방향이어야 된다는 점에는 아무런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련적 민주주의나 영미적 민주주의를 모두 원치 않는다. 그들은 모두 다수한 이민족을 포섭한 국가일 뿐 아니라 세계 지배를 꿈꾸는 강자들이다. 강자의 철학과 약자의 그것은 스스로 달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고 조섯민족에게 적절하고 유리한 민주주의 이념을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민주주의적 민족주의라 하며, 간단하게는 신민족주의라고 한다." (김정인, 2016, 《역사전쟁,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 책세상, 192쪽 재인용)

2) 김육훈, 2016, 〈미래를 여는 역사교육, 그 방향과 과제〉《한국 역사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아서》, 초 중고 역사교육연구 제 4차 토론회집. 참조.

02 민주주의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 확산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 개념을 역사화하는 역사교육을 통해 다양한 민주주의를 상상하고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인간을 길러내려는 시도는 2009년 "교사와 연구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벽을 넘어 상시적으로 우리 역사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자" 설립된 역사교육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 역사교육연구소는 출범할 때부터 '민주주의와 역사분과'를 운영하며 민주주의 역사교육론을 마련해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주장들을 김정인의 <<역사전쟁,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를 통해 소개한다.[3)]

김육훈은 민족 정체성 함양을 목표로 한 역사교육을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내세우는 반공주의적 대한민국사라는 국가주의 역사인식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을 살아갈 시민을 제대로 길러내는 역사교육을 제안한다. 역사교육이 길러내야 하는 시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한종은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역사교육을 제안한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비판적 사고와 실천의식을 기르는 것을 역사교육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첫째, 국가나 정부의 정책, 민주주의 성립과 발전, 민주화의 과정, 둘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역사적 쟁점, 셋째, 개인적 판단과 선택이 들어간 역사적 사실 등에 주목하여 가르칠 것을 제안한다.[4)]

민주주의 역사교육론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3) 이 장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김정인(2016, 〈국가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로: 역사교육의 어제, 오늘, 내일〉 《역사전쟁,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 책세상)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4) 김한종, 2014,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 《청람사학》 23.

구체적 역사 사실 중에서 민주주의적 내용 요소를 추출한 연구성과도 나오고 있다. 황현정은(황현정, <민주주의 요소로 본 역사교육 내용 선정 원리>) 한국사에서 민주주의 요소나 가치를 내용 선정 원리로 선정한 뒤 공동체 전통 및 협의 문화, 민본 사상, 자율적 인격주체 등의 주제로 구체적인 사실을 추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의 민주주의 역사교육론의 흐름을 방지원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 평화나 공존, 다문화, 인권 등 민주주의적 가치에 입각하여 역사교육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역사교육 내용 선정의 근거로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러한 관점에서 기왕의 역사교육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실천 또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1970년대 <<국사>>의 국정화와 더불어 오랜 세월 공공하게 유지되어온 국가 중심의 역사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학생 개인의 주체적 삶을 고양하고, 인권과 평화,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서 역사교육의 본분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교육 담론의 형성과 맞닿아 있다. 최근 빠르게 떠오르는 이 역사교육 담론에서는 교육내용 선정 조직부터 학습 활동,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학습자가 '민주공화국',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삶을 영위하는 배움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역사교육에서 제기되는 쟁점이나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때, 배움과 삶의 주체인 학습자의 역사인식에 유의하려고 한다.(방지원, <국민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주체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 향후 역사교육 과정 연구의 진로 모색>)

오늘의 역사교육에서는 민주주의 역사교육에 관한 논의에는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역사교육 전 과정에서 관철해야 할 민주주의 원리, 학습자를 배움과 민주주의적 삶의 주체의식 등을 포괄하며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인은 이상의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분석하면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교육은 역사교육 운동속에서 실천적으로 부활한 후, 지금 이론면에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현재의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연구 흐름을 평가하고 있다.

03 민주주의 역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민주주의 역사교육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확산되면서 현장 교사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도 진행되었다. 2016년도에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지방교육청, 관련학회 등이 중심이 되어 전국 순회 토론회가 진행되어 왔다. 제4차 토론회가 지난 9월 9일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현장교사들의 의식조사 결과도 보고되었다. 민주주의 역사교육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여기에 소개한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조한경 최승원은 현장 역사교사의 역사교육 목적에 대한 실증적인 최근의 인식조사로 2015년에 진행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였다.[5)]

역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① 민족 유산 학습을 통한 민족 정체성	285명	28.19%
②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시민의식	753명	74.48%
③ 주인 의식과 애국심	80명	7.91%
④ 다원적 관점의 배려와 이해	279명	27.6%
⑤ 역사적 교훈을 통한 인격적 성숙	360명	35.61%
⑥ 자료에 대한 분석력과 사고력	106명	10.58%
⑦ 해박한 역사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85명	8.41%

5) 조한경·최승원, 2016, 〈국정화논란 및 역사교육 개선에 대한 역사 교사들의 인식〉 《한국 역사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아서》, 초·중·고 역사교육연구 제 4차 토론회집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장의 역사교사들은 "역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라는 설문조

사에서 역사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된 우리의 현실에서 애국심이나 지적 성취도 필요하지만 '다원적 관점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 교육이 되어야 함을 현장 교사들이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제4차 토론회에서 보고된 인식조사는 <<역사교육 연구와 실천과제 제안을 위한 현장 역사 교사의 인식조사 보고서>>(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 2016.9.9) 이다. 이 조사의 목적을 "미래 지향적인 역사교육의 전망을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역사교육 연구와 실천의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역사교육 현안에 대한 역사담당 교사들의 현장감있는 의견을 듣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 <<역사교육 연구와 실천과제 제안을 위한 현장 역사 교사의 인식조사 보고서>> 조사개요 -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 중등학교 역사 교사
조사기간	2016년 8월 22일~9월 2일
응답자수	844명
조사방법	메일과 문자를 수신한 역사교사가 온라인으로 응답
분석도구	SASW Statistics 18
설문문항	17 문항
표본의 특징	전체빈도와 집단별 합계의 오차는 무응답 수치임

전국 중등 역사교사 844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22일에서 9월 2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는 메일과 문자를 수신한 역사교사가 온라인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17문항의 설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방향과 방법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거나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❶ 좋은 역사 교과서

먼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역사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입니까”라는 질문에 교사 60.9%가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교과서’를 꼽았다. 23.9%는 ‘다양한 수업활동을 가능하게 주는 자료가 풍부한 활동형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응답하였다. 84% 교사들이 ‘다양한 관점’,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역사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입니까		
① 역사적 지식과 사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교과서	36명	4.3%
② 다양한 수업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료가 풍부한 활동형 교과서	201명	23.9%
③ 한권의 책처럼 잘 읽히는 이야기 같은 교과서	79명	9.4%
④ 학생의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교과서	512명	60.9%
기타	13명	1.5%
합계	841명	100%

❷ 교사 수업방식

교사들의 수업방식을 묻는 “선생님의 역사 수업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66.0%가 ‘교사 중심의 설명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토론식 수업과 글쓰기 수업이 30%에 이르는 것을 보면 현장에서도 다양한 수업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역사교육 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선생님의 역사 수업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교사 중심의 설명·강의식 수업	536명	66.0%
② 학생중심의 토의토론식 수업	59명	7.3%
③ 자료를 토대로 글쓰기등의 학생 활동 중심 수업	192명	23.6%
기타	25명	3.1%
합계	812명	100%

❸ 논쟁적 주제에 대한 수업방식

"선생님은 근·현대사의 논쟁적인 역사 주제를 어떻게 수업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79.9%가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찬반관점을 모두 제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고 답함으로써 특정한 관점으로 근현대사를 접근하기보다는 논쟁적 주제에 대한 찬반의 관점을 모두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근·현대사의 논쟁적인 역사 주제를 어떻게 수업하십니까		
① 이념 갈등을 촉발할 것 같은 주제는 교과서 내용만 수업한다.	30명	3.6%
② 역사 교사로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관점을 제시한다.	126명	15.0%
③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찬반관점을 모두 제시하고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672명	79.9%
기타	13명	1.5%
합계	841명	100%

❹ 정부의 역할과 과제

"정부(교육부)가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에서 교사들은 '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41.0)%), '학생 및 교사 동아리 활동(38.6%)'을 주요과제로 들었다. '역사 교사 연수 강화'보다는 자율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역사교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현장의 목소리이다.

정부(교육부)가 역사교육과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역사 교사 연수 강화	118명	14.2%
② 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341명	41.0%
③ 학생 및 교사 동아리 활동(국내 및 해외 답사 포함)	321명	38.6%
기타	52명	6.3%
합계	832명	100%

❺ 지역 교육청의 역할과 과제

지역 교육청이 역사 교육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설문에서도 정부에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정부와 지방교육청에 교사들에 대한 간섭 보다는 교육활동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지역 교육청이 역사 교육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① 교사 연수 강화(신임교사 연수, 심화 연수 등)	175명	21.0%
② 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206명	24.7%
③ 학생 교사 역사 동아리 활동(국내 및 해외 답사 포함) 지원	287명	34.4%
④ 지역 차원의 시민강좌나 역사교육 토론회 개최	146명	17.5%
기타	21명	2.5%
합계	835명	100%

역사교사들의 현장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논점을 드러내어 토론하며 역사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역사 수업을 지향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정부와 지역 교육청의 역할도 간섭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찍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역사 교육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04 나오며

민주주의 역사교육 연구와 방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의 민주주의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 흐름과 역사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더 많은 연구와 현장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학자와 교사 교육기관들 간의 논쟁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과거 정권유지 혹은 국가 정체성을 위한 역사교육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역사교육이 한국교육과정에 정착되고 정책적으로 구현되길 기대해 본다. 결론을 대신하여 김육훈선생이 제안하는 <미래를 여는 역사교육, 그 방향과 과제>의 내용 중 "삶 속의 역사, 삶을 가꾸는 역사: 시민의 자기형성"[6] 을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 제안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맺고자 한다.

오래 동안 많은 역사교사들은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활동의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고 실천하였다. 화석화된 과거 지식을 주입하는 역사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교실 속에서 살아있어야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역사가 오늘 학생들의 삶에 의미 있는 무엇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를 생생하게 복원하여 학생 스스로 살아있는 과거를 만나야 한다는 취지였다. 나아가 학생들의 진정한 앎은 자기 삶과 연계하여, 실천적 문제의식과 연계할 때 의미 있는 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시민교육논의에서 확인한 방향성, 혹은 실천성의 원칙과 만난다. 이제 양자를 연계하면서 대안적 역사교육논의와 관련한 추가적인 제안을 덧붙여보겠다.

첫째, 역사를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감수성 그리고 변화

역사가 학생들에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역사를 생생한 형태로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체험적 역사교육프로그램을 다변화한다.

넷째, 교과서와 교실 밖 역사의 소통과 역사문화 바꾸기

교사들은 학교 밖 역사 문화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학교 밖 역사문화가 학생의 사회 역사인식에 미친 차이를 의식하고 이를 교재화한다.

6) 김육훈, 앞의 글 중 해당 부분을 요약 정리함

그는 또한 역사교육을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하여 해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교육 주체들간의 소통과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인권에 기반하고, 인권의 증진을 추구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하고,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함께 역사교육의 내용체계를 담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다.

민주주의 역사교육은 아직은 대안적 역사교육의 틀에 머물러 있다. 김육훈의 제안처럼 현장에 있는 역사교사와 역사학계, 교육학계가 이론과 실제를 기반으로 향후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미래를 여는 역사교육이 확립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김정인, 2016, <<역사전쟁,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 책세상.

2) 김육훈, 2016, <미래를 여는 역사교육, 그 방향과 과제>, <<한국 역사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아서>>, 2016. 초 중 고 역사교육연구 제 4차 토론회집.

3) 조한경·최승원, 2016, <국정화논란 및 역사교육 개선에 대한 역사 교사들의 인식>, <<한국 역사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아서>>, 초·중·고 역사교육연구 제 4차 토론회집.

4) 전국역사교사모임·역사교육연구소, 2016, <<역사교육 연구와 실천과제 제안을 위한 현장 역사 교사의 인식조사 보고서>>

5) 김한종, 2014,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 <<청람사학>> 23.

민주주의 역사교육 연구 동향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6년 11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9 772508 324001 11
ISSN 2508-3244